작년 광주·전남 신생기업 감소세 '뚜렷'

●통계청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1년 새 광주 1천108개·전남 1천292개 줄어

20% 이상 고성장기업 감소는 전남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 신생기업이 1년 전보다 2천400곳 줄었다.

특히 20% 이상 고성장기업도 양 지역 모두 나란히 감소 양상을 띄었는데 이중 전남의 감소율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광주·전남의 신생기업 수는 각각 2만5천587곳·3만2천957개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천108개·1천292개 줄은 숫자로 신생기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광주는 2017년(-156개) 이후 4년 만, 전남은 2018년(-285개) 이후 3년 만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신생기업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신생기업의 종사자 수는 광주 3만7천명, 전남 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보합한 반면 전남은 1년 전보다 2천명 줄어듬에 따라 2019년 이래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9년 지역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1년 생존율)은 광주 65.1%, 전남 66.4%로 나타났다.

양 지역 모두 전국 평균(64.8%)을 웃돌았으며, 1년 전보다 광주는 신생기업 생존율이 0.5%포인트(p) 하락, 전남은 0.9%p 상승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광주 86개, 전남 138개로 1년 전보다 각각 2개(-2.2%), 27개(-16.3%) 줄었다. 전국 고성장기업이 1년 전보다 18.5% 증가한 것과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1년 전보다 고성장기업이 줄어든 것은 울산과 광주·전남뿐이었으며, 고성장기업 감소율은 전남이 울산(-6.6%)을 제치고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성장(20% 이상) 기업 가운데 사업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도 전국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4.5%(176개) 늘어난 데 반해 광주(25→21개)·전남(44→25개)은 각각 16.0%·43.1%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기준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활동기업은 705만6천개로 전년 대비 23만5천개(3.4%) 늘었다. 활동기업 가운데는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소기업 비중이 50.4%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인 활동 기업이 1년 전보다 3.4% 늘면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에 종사한 기업 10곳 중 8곳은 1인 기업이었고, 절반은 매출이 5천만원에 못 미쳤다는 의미다. /양시원 기자

따뜻한 겨울 나세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연말연시를 맞아 22일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목도리·실버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행사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아동들과 함께하고 있다.

광주 수출업체 10곳 중 4곳 "내년 더욱 악화"

광주상의 체감경기 조사…'호전' 31.1% 그쳐

광주지역 수출업체 10곳 4곳이 내년 상반기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수출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수출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36.9%가 올해와 비교해 체감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2.0%,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31.1%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환율·유가 변동 등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광주상의는 분석했다.

업종별로 IT·전자, 자동차(부품), 철강·금속가공 등은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기계·금형, 화학·고무·플라스틱, 식품·농림수산 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수출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내외 리스크로 71.8%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꼽았다. 수출국의 경기 부진(41.7%), 환율 변동성 확대(41.7%), 물류비용 상승(39.8%),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32.0%), 인건비 상승(24.3%) 순이었다.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방안으로 61.2%가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생산 효율화, 공장자동화 등 비용 절감(39.8%), 신흥시장 개척 등 시장 다각화(35.0%), 사업개편·투자 축소 등 긴축경영(26.2%), 컨설팅 등 수출지원사업 활용(19.4%), 인력충원(3.9%) 등이 뒤를 이었다.

10곳 중 1곳 이상(11.7%)은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유관기관에 바라는 정책지원 과제로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안정(62.1%), 수출기업 금융지원(55.3%), 해외전시 및 마케팅 지원(25.2%), 바이어발굴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23.3%), 해외 인증사업 지원(14.6%), 기술개발(R&D) 지원 강화(14.6%) 등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도 42.7%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악화했다'고 답했다. '호전됐다'라거나 '비슷했다'는 응답은 30.1%와 27.2%에 그쳤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시장개척 지원 등 수출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TP,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안전보건분야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예방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공인 안전 기준으로 제정했다.

그간 광주테크노파크는 노사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 조직내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 인증취득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관련규정 제정, 내부심사원 육성, 임직원 교육 등을 이행,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뿐만 아니라 150여개 입주기업들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1회 광주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성료

대상 오재환씨·최우수상 남상은·이현주씨 등 총 7작품 선정

(재)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2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해 개최된 '제1회 광주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광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 디자인을 주제로 광주시 개최, 광주디자인진흥원 주관 하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공모전은 지난 9월21일-11월27일 광주시,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전국 소재 디자인학과, 디자인 관련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68일간 출품된 공모작은 총 155작으로, 1·2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네티즌 투표를 통한 대중 심사를 반영해 광주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구에서 총 7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무등산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툴박스 작품명 'moo'로 오재환(서울)씨가, 최우수상은 캔들 불빛에 의해 나타나는 광주 명소 일러스트를 보고 광주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광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굿즈인 작품명 '광주의 빛을 품은 캔들 홀더'의 남상은·이현주(충남)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우수상 2작품, 시민 인기상 3작품도 각각 뽑혔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총 1천80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 인기상은 광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올해 선정된 4작품은 2023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상품화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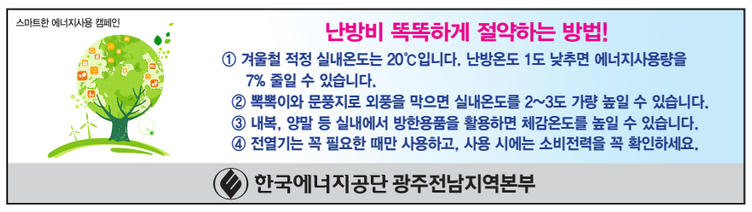
한은 목포본부, 지역 中企 설자금 50억 지원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상여금 지급 등 자금이 필요한 전남서남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은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이다.

지원 규모는 5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약 300억원)으로 업체당 대출취급한도 6억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은행의 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로 기존 C2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은행의 대출 취급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다.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이번 설자금 지원이 지역 중소 기업들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